

## 승리 Victory

오늘, 여러분들 생애에서 결코 이전에 거의 들어보지 못한 어떤 것을 점검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그 무엇인가를 꿈꾸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 생각해 보았다가 그대에 마음에서 털어 버리기도 하였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결코 그들 생애 가운데서 한번도 명백하게 고려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대한 진리로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별 없이는, 그대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이 기별 없이, 오로지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믿기만 하는 것도 아니며, 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가 결코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자는 오늘 기별의 제목을 들을 때 비판적이거나 또는 교만하다고 나를 단정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대의 귀를 막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작은 음성을 듣고 굴복하기 전에, 내가 그대에게 성령의 음성, 성경 말씀으로 경고하여,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21.

그리고, 다시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사야 8:20.). 그렇다고 그 말씀이, 현재 우리의 감정과 관념적인 것들과 대립되는 것들을 무시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명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아니고, 느낌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당함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이것을 동의하는가?

우리가 바로 동의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별의 주제를 한마디로 묶을 수 있다. **승리**. 어쩌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사단을 우상으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단어가 오늘 미지근한 개종자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축하도록 만들 것이다.

### 죄 없는 생애 (sinlessness)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가? 유혹이 문 앞에 끊임없이 가로 놓여 있을 때, 죄인들이 세상 죄와 “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다고 우리 중에 누가 기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죄 된 본성을 잊지 않고 죄를 버릴 수 있는가? 비록 우리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할지라도 이 승리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언급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아주 많은 형태로 그들이 죄에 빠지고 회개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였다.

친구들이여, 사단은 진리를 뒤틀어 놓은 거장이다. 내가 작성한 바로 이 목록들이 얼마나 많은 상태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똑 같은 성경 말씀들에서, 내가 작성한 바로 이 목록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형태로 말하였는가?

아직도 그대가 부분적인 이 스토리를 결코 알 수 없는 것은, 그대의 지도자들, 그대의 목사들, 그대의 교회들이나 그대의 형제들로부터 들어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알고 있는 것은, 사단이 이 세상을 잠시동안 사악하게 붙들고 있는 동안, “죄 없는 생애” 에 \*단어\*조차도, 그리스도 자신 외에 어떤 다른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충격적인 요동과 소곤거리는 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잠시동안 상상해 보라: 그대가 믿는 것은 죄가 잘못된 것이다. 그대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죄 됨으로 그대가 믿는다.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심을 그대는 믿는다.

사단의 속임수인 거짓 죄사슬을 아주 빨리 깰 수 있다. 왜냐하면 죄사슬이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안으로 초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그대를 자기 것으로 보유하기 위한 사단의 디자인이다. 오늘 그대에게 내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대의 생애가 변화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대가 이전에 상상하였던 것보다도 훨씬 더 변화되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어두움을 나타내어 변화 될 것인데, 이는 오늘 그대에게 거룩한 성경 말씀을 제시한 지식에 대하여 그대가 어떻게 바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그대가 나갈 때,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 나의 기도는 그대들 모두가 응답하기 바란다.

내가 간단한 질문을 하겠다. 치료법과 (treatment) 회복이 (cure) 어떻게 다른가?

회복은 우리의 병을 즉시 고치는 것이고, 치료법은 증상들을 단순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질문한다. 어떤 존재가 창조된 것과, 또는 어떤 존재가 진화되어 발전된 것, 둘 중에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성경에서 창조는 즉시 나타나는 것이고, 진화는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그 무엇인가 더 높이 달성 될 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연속됨을 필요로 한다.

내가 그대들에게 질문한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분이 회복하시는 분인가? 또는 죄를 조절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가? 우리가 새롭게 창조 되었는가? 또는 우리가 진화 과정에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더딘 사업으로 치료되며 하늘에 도달 할 때까지 정결케 한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높은 지점까지 통과하여 갈 수 있고 또 낮은 지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으며, 어떤 때는 죄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마지막 때 보다 더 우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진화될 수 있다고 어떻게 감히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요한 일서에 있는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읽는다: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고,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9.) 어찌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을 낼지도 모른다. 내가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에 동의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정들과 경험들을 옆으로 쳐놓고,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면, 그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그대가 개심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는 새롭게 창조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대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다. 내가 그대를 낮추고 또는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고, 그대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 때문이며, 순서에 따라서 그대가 그분을 받아 들여야 함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 생애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고”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 친구들이여, 내가 진리에 해석을 약화하거나 진리의 감화를 받아들이는 그대를 비난하는 자리에 내 자신을 놓지 않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복음 그대로 말한다.

어쨌든,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할 때 내가 제시하는 성경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숙고하기 바란다. 이 시간 끝에 죄의 승리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질문들 또는 반대에 대하여 하나 하나 내가 전부 설명하겠다. 이후에 우리가 질문과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만일 어떤 것이라도 취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기 바라고, 공중에서 말하고 싶지 않으면, 설교 후 개인적으로 말하기 바란다. 지금, 우리의 자존심이나 감정들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에 동일한 저술가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성경을 펴다. 요한일서 3:9절을 우리가 이미 취급했으므로, 지금 로마서 6장을 펴보도록 한다. 로마서 6장 전부를 다음과 같이 읽는다.

-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3.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니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6.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7.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8.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 하지 말고
13.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15.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17.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18.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19.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21.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23. 이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지금 읽은 로마서 6장이 죄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상 꽤 많이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응답하면, “죽은 옛 사람이” 아직도 가끔 관속에서 기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시시때때로 쓰러졌다!

그런데, 이 성경절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한다. “살아 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9:5,6.

죽은 자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죽은 자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일격을 가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죽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소멸되었으므로, 그들의 모든 생각들과 감정들이 사라졌고, 그것들이 더 이상 그들 안에 없으며, 존재함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그대는 아는가? 물론 그대는 알고 있다. 그것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한 구원없이는, 부활이 없다.

만일 우리의 옛 본성이 죽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죄짓도록 만드는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면, 우리의 죽은 육신이 어떻게 우리를 정복할 수 있는가? 승리에 실체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 사람은 정복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2:19.

바울이 다시, 이 질문에 분명한 응답을 한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16.

또 다시, 그리스도 자신에 말씀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34.

이러한 성경절들을 내가 단순히 믿는 것은, 우리가 만일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단 한번이라도 죄에 정복당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 그 죄가 우리를 소유한다.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샀으며, 또 우리가 그의 지배권 아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가 우리를 정복할 수 있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그는 우리가 죄 짓도록 할 수 있다.

그대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그대 자신들에게 정직하고, 또 하나님과, 나에게 정직한, 바로 이 순간에 죄와 사단에 종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미워하든지 또는 다른 자를 사랑하든지, 또는 그를 사랑하고 다른 자를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친구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와 사단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만일 그대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대는 죄를 섬기고 있으며, 사단이 그대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죄 짓기를 멈출 수 없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바 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20.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로마서 8:8절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나에게 말하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노예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가? 누가 사단에게 붙들려있는 우리를 구해 낼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을 편다. 예수께서 그들에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좋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34-36.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 만일 아들이 그를 자유케 하면, 죄에 종으로 매어 있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는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였는가? 성경이 어떤 의도라도 이집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3:8.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2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사단에 매어 있어, 죄를 짓고, 또 죽게 되었으므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죄에 매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로마서 6:18.

지금까지 이해하는가? 지금까지 요점들을 요약하여 보면: 만일 그대가 죄를 범하면, 그대는 죄를 섬기는 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면, 우리가 의를 섬기는 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면, 우리가 죄 짓지 않을 것을, 성경말씀이 이 핵심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확립한 것을 내가 믿는다. 지금 내가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친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은혜 아래에서 죄인들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면서,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 사업을 하여 의를 이루고, 또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죄 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없다. 성경에서 결코 개심 한 죄인이라고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죄인은 오직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자이며, 또 은혜 아래에서 개심할 필요가 있는 자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만은 참된 진리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은혜”의 의미가 우리가 계속 실족하고 또 계속 회복 받는 것인가? 아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기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근거로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신사숙녀들이여, 은혜 아래에서 실재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다.

1. 아담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2. 그 결과로 아담과 같은 “나무”가 변화되어 부패한 나무가 되었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낳은 자녀들이 죄된 근성과 함께 태어났으므로, 우리 모두들이 이것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다.
3. 우리가 당연하게 이 본성을 받아서, 모두 죄를 범하였으므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과거 - 완전한 시제 - 완성된 행위)
4. 그러므로, 사람이 일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모두가 지난 과거에 어떤 지점에서 실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였으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네 가지의 항목을 우리 모두가 동의함을 내가 믿는다. 여기 5째 항목을, 사단이 그대의 마음과 조력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으로 따돌리는 것이다.

## 5.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친구들이여.. 은혜는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칙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비틀고 썩 변화시켜서,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은 은혜 아래서 실족하고, 또 은혜로 일으킴 받는 것이 동등하다고 한다. 이것만은 참되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참된 말씀을 제거하고, 이것이 되풀이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족하고 또 은혜로 일으킴 받는 것이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고...

내가 그대에게 계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분의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안면이 더럽혀진 죄인을 실족한 상태로부터 일으킬 것이며; 그대를 구속주의 빛나는 자녀로써 승리자로 계속 지키실 것이다.

유다서에서 그의 편지로 우리 주를 찬양하고 난 끝에 말하기를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 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 지어다.” 유다 24,25. 이 성경절에서 유일한 언어로 “실족하지 않게”와 “지키시고”가 함께 나타났다.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도 순종할 수 없고, 또 그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도 순종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고 매질 당하셔서 그대를 개인적으로 사신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그대가 받아들이기를 결심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도 순종할 수 없었으나, 그분의 아버지와, 말씀을 끊임없이 의존하여 순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속임수를 썼는가?” 그분이 그분의 신성을 사용하여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켰는가?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 아닌가? 만일 그분이 우리를 능가하여 하나라도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있는가?

아니다. 그분은 속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과 같이 고통 당하였고, 또 사람과 같이 유혹을 당하였으므로,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아버지에 의하여 들어 올림 받으셨고,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모본이며, 또 이 모본을 우리가 행하도록 초청한다. 그분이 그대를 높이 들어 올릴 것이고, 또 실족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분이 행하시도록 허락만 하면, 그분이 그대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이 제시하실 것이다. 이와같은 신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도 행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이 시점에서 그대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하나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죄 된 본성은 어떠한가? 성경이 이것에 대한 것도 대답한다. 그대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들여온 사람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었으므로,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이 다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첫째 사람에게 첫 번째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첫째 사람의 실족한 본성을 유업으로 받았다. 두 번째 태어남은 어떠한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1:4.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고” 새롭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로 그 본성이 변화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의 신성으로 두 번째 태어났으므로, 실족하지 않고, 죄 없고, 흠 없는 본성이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본성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취급하였는지 기억한다: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 이는 우리의 옛적 본성이고, 우리의 죄 된 사람으로써, 첫 번째 태어남에 참여한 사람이 개심하여 죽었으므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대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절반 정도 옳게 알고 있다. 지난 어느 때 내가 어떤 목사와 전화로 대화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두 길로 내가 알고 있다. 하나는 죄이고, 또 하나는 죄를 행하지 않는 영적인 본성이다.'고 하였다. 내가 질문하기를 그것이 '육신과 영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하였을 때 그가 말하기를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목사는 그리스도 복음을 절반 만 이해하고 있다. 그는 새롭게 창조된 것을 알고 있으나, 자신이 죽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로마서 6장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목사가 말한 것이 꼭 옳은 것을, 그대가 안다. 최근에 내가 들은 것은 아직도 두 사람이 (육신과 영) 걸어 다니는 상태다. 왜 인가? 그 이유는 그 자신의 옛적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곳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들 자신 안에 두 사람이 전쟁하고 있음을 경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대들 안에 있는 일부분이 하나님 뜻대로 옳게 행하기 원하고, 그것이 항상 그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또는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어떤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자신의, 육신이, 말하기를 잊어버려라, 그것을 진전하고 행하자, 그것은 너의 기분을 좋게 할 것이다, 그것이 아주 쉬운 방법이다, 그것이 더욱 더 편안할 것이다.고 한다.

그대가 바로 그 음성을 좇아버리기를 원하는가? 그대 안에 있는 일부분이 항상 그대를 붙들어서 그대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동기의 전부는 그분이 그대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일 순간에 그대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 일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며, 말씀이 순간적으로 말하여 - “영” 으로 행하게 하고, 또 오직 “영”이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그대는 질문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취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자신이 죽을 수 있는가? 친구들이여, 이 의혹들이 모두 단순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 얼마나 단순한지, 그대가 놀랄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게 할 것이다. 왜?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하게 내포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포기하라.

그대가 빈번히 자신을 포기하기를 시도할 때, 그대가 실패할 것이다. 왜 인가.를 그대는 아는가? 왜냐하면 그대가 그것을 시도할지라도 아직도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죄에 승리를 위하여 전쟁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바로, 청중들이, 그들 자신의 생애를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이유가 있다. 인간적인 존재로써 그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친구들이여, 그대가 그대 자신이 행하고,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 행하며, 그대가 만일 총명이 풍부하여서, 그대 자신을 차에 부딪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 그대의 육신과, 그대의 죄 된 근성, 옛적 본성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깨어진 본성이 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못 박아야 한다. 만일 그대가 그분이 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분이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이 유일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 그 전쟁을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그분의 사명이 성취되었다. 나의 생애에서 성취되었고, 또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 단호하게 굴복하고자 결심하면 그대들의 생애에서도 성취 될 수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자신을 포기하라, 이것이 유일한 길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그대가 자신을 포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늑대들의 위로 그대를 운반할 것이며, 이것으로 그대가 그 늑대들을 통과하여 달릴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대를 십자가 위에 놓도록 그분께 허락하라. 그대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을 것이고, 또 **육신 안에서 고통 한 후에, “영”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베드로전서 4:1.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1:4.

우리가 어떻게 신에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부패한 이 세상에서 도망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하여서다. 그들에게 준비된 그 약속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신 많은 광대한 약속 중에서 내가 단지 그대에게 아주 작은 것을 보여 주었고, 또 그대의 생애에서 그것들이 모두 행하여져야 하고 단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그대의 생애 가운데 모시고, 또 그분의 것이 되기 위해, 지금 완전히 그 약속들을 받아들여야한다. 불구자가 일어나서 그의 침상을 들고 걸었던 것처럼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행하라;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한 것을 행할 때가 되었으므로, 이것이 승리할 수 없다는 논쟁으로 초래될 수 있고, 또는 어쩌면 더 좋게 말하여서 사람들이 이 기별에 관하여 일반적인 질문들과 타당한 의견을 가질 것이다. 나의 믿음은 내가 보여준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시간을 써서 취급한 바로 이 주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였고, 우리가 알기에 성경말씀들이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어떤 편벽에 의한 논쟁이 있을 수 없으나, 어떤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견해로 위치를 정하고, 반대되는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또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성경말씀을 간단히 보여주면서

그들의 견해를 뒷받침 한다.

성경말씀은 조화를 이룸이 분명하고, 또 모든 다른 가르침들이 완전한 일치조화로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지금, 이 기별을 듣는 자들의 질문으로 대답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취급한다.

1. 요한일서 1:8.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내가 시작할 때 전체적인 근거를, 이 성경절로 말하였으며,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입증 없이 대답하는 것 같이 보인다. 내가 자주 인터넷 복음사업에 참여하는데, 이 구절을 설명하려 할 때 '성경절을 더한다.'는 이유로 대화방에서 대화 도중에 금지 당하였다. 성경이 승리에 대한 어떤 구절을 인용하여 해명하지 않았다.- 이 성경절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영감이기 때문에 이 성경절이 잘못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대에게 주의 주고자 하는 것은 그대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 단 하나의 성경절에 매달려서 다수에 다른 성경절들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승리에 대하여 아주 두드러지게 동의하며, 이것을 저술가가 동의하였고, 모든 성경 말씀이 동의한다.

지금 이것들을 말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질질 끌고, 또 피하는 것 같이 보였음을 사과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필요한 점을 지적하여야 했다. 이 지점에서 더 좋은 인용문을 다시 제시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요한일서 1:8.

요한이 그의 서신들에서 독특한 스타일에 기록으로 요점을 재 강조하여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본래의 의미로 향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이 성경절도 예외가 아니며, 또 요한일서 1:6절과 요한일서 2:4절과 함께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이 성경절들을 읽으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성경의 각 구절들을, 요한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록한 것은, 지식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조직적인 믿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다. 지식인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 성경과 다른 것들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가르친 것은, 만일 그대가 “구원받았으면” 그대가 행한 어떤 것도 법에 관계없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어떤 흔적들이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를 통하여 스며들어와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항상 구원받았다.”는 형식 안에 있는 몽상가들이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대가 죄로 간주되는 어떤 것 이상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대의 행위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타락한 것과는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죄 짓는\* 도중에 만일 그대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요한이 그 자신을 반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은 \*같은\* 편지에서 2장 후에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9.) 그리고 또 다시 요한의 참된 스타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18.)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실제로\* 죄를 중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9.

2.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1.

답: 요한 일서에 다른 성경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탐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오용하는지 알 수 있다.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로 증명하여 말함을 듣고 경악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말씀과 성경구절에 의미를 완전히 변경시켜서, 허다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들대로 적합성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성경구절이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and 영문) 만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라고 우리가 읽는다. 여기에서 그리고는(and), 새 문단이 시작될 때 그럭 언어는 다르다. (“But”은 De, “And”는 Kai.)

이것이 말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But 영문), (새 문단이 시작된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어떤 사람이 죄 안에 있으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한 변호인이 있다. 더욱이, “죄”의 단어를 여기에서 “과거”에 해당하는 문법으로 사용했어야 하며, 또 그리어의 번역을 완전히 과거에 해당하는 문법으로 기록되었어야 된다. - 그것이 이미 지나간 과거로써, 완전히 완료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한 구절과 같은 문체이다.

3. 로마서 7장을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암송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며, 나 역시 암송하지 않았다. 그러나 묘하게 바로 지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인식하지 않고 그 구절들을 마음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6장을 이전에 읽은 것을 기억하면서 7장을 읽도록 한다.

1.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4.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5.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6.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낚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색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9.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10.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11.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12. 그러므로 율법도 참으로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13.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14.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음이라.
16.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17.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19.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20.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22.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낼 것인가?
25.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답: 이 장은 승리의 개념을 반대하여 감추어진 구절들과 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기억하도록 한다. 모든 성경 말씀은 조화를 이룸이 틀림없다. 또한 기억하여야 할 것은, 내가 그대들을 공격함이 아니고, 오직 그대를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도하고자 함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분이 아낌없이 주신다: 만일 그대가 나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경구절을 찾는다면, 나의 질문은, 왜 그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읽었다. 내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던 것을 유의하자 -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의에 종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등등.. 내가 또 지적하는 것은, 문단 끝에서 때때로 역자들에 의하여 선한 목적으로 분리가 (장들과 구절들에서) 추가되었다. 어쨌든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 같은 페이지에서 정반대로 보이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여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바울의 그릭 말 방식은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설명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였다. 이것을 영어에서도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진술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가를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가?

지난 주에 나는 집에서 나와서 잔디 위를 걸었다. 내가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아무 일도 없으므로 내가 두 도로를 지나 길로 내려갔다. 내가 더 이상 걸을 흥미가 없었으므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 내가 지난 주로 때를 정하였고, 그리고 나머지를 언급하였으므로, 내가 현재 시제로 지금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것이 일어난 것은 일 주일이 지났다. 지금 이 질문에서, 로마서 7장에 구절들이 시제를 정하였는가? 그렇다; 로마서 7:5.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로마서 7장에서 나머지 구절들을 연속적으로 구성하였고, 이 경우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를 경험하여 지나간 과거에 - 시제 문법을 현재 - 시제 문법으로 사용하였다. 우리가 이전에 취급한 분리에 관한 것을 더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1절로 가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 시제 문법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지금: 영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 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는 최소한도 6장부터 8장까지 하나같이 계속하여 읽어야 될 것은, 이 주제가: 죄를 승리로 (6장)- 육신 안에서 살았던 정반대의 지나간 생애 (7장) - 육신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큰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만일 그대가 아직도 의문이 있거나 또는 더 알고 싶으면 설교 끝난 후에 말씀하시고, 데이비드 형제가 작성한 목록에 의하여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진술들로 상반되는 구절들과 또 다른 성경말씀에서 언급된 말씀으로 하나 하나 설명하겠다. 그리고 모든 다른 장에 있는 그의 언급들이 사실상, 바로 같은 로마서에서 모든 구절들이 최소한도 하나가 대조를 이룬다; 오늘 여기에서 제시한 것 외에는 로마서 7장이 이치에 맞는 다른 견해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으며, 또 만일 내가 무엇이든지 빠뜨린 것이 있거든, 다시, 이 시간을 마친 후에 질문과 대답 시간을 이용하기 바란다.

4.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매일 죽노라” 한 것은 한결같이 그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매일처럼 몸부림친 것이다.

답: 그대가 아는 것처럼, 성경말씀으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대가 이해할 수 없어 고심할 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구절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 구절 앞과 뒤에 있는 절들을 잘 읽어야 한다. 문장 전후 관계의 전망은 놀랄만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두새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전 장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훌륭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바로 이 성경절의 이전과 이후에 절들이 그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었다.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협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써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5:30-32.)

바울이 그 자신의 육신이나 왕년에 (거듭나기 전)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 보다는 그가 오직 자신을 항상 준비하여, 에베소에 짐승과 같은 자들과 싸워서 매 시간 위난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매일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신적으로 실제적인 죽음을 기뻐하여 보여준 것이다. 그것은 왜 인가? 그 이유는 그가 완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구절로 지적하여 부활을 말한 것이다.

5. 바울이 왜 그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였는가?

답: 이 구절을 디모테전서 1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바울이 어떤 고결함으로 그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로 고려하였는가? 13절이 우리에게 말한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리라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고결하였던 그의 지난 생애를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열거하였으나, 어떤 의도로도 그가 지금도 죄를 짓는다는 암시가 아니고, 또 그가 지금 그 자신의 행위들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한 것은; 같은 바울이 말하기를 결국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여 왔노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23:1, 24:16.)

6. 베드로가 삼년 반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 하였으나, 여전히 그분을 세 번 부인하였다. 그가 개심 하지 않았다고 그대가 말하는가?

답: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개심 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22:31-32.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하신 말씀으로, 베드로가 오순절 후까지 개심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상스럽게 보일 수 있다. 이것 역시 참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세월 동안 생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은 그분에 대한 느낌을 여러 번 가졌고, 또 그들이 베드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믿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베드로와 같이 행하였다면, 회심에 의미도 없이 홀로 행한 것이고, 또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그가 최종적으로 행한 것처럼 그대도 역시 베드로가 행한 것과 같이 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대를 창조하시도록 허락하라. 그분의 완성품이 되라.

7. 다윗 왕은 어떤가? 성경이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여전히 바쉬바와 함께 범죄 하였다

답: 다윗이 그에게 비추어진 빛을 받아서 알고 있던 것만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어쨌든 그가 역시 회심에 이르기 전에 여러 번 가증한 행위들을 하였다. 그가 거짓을 행하였고, 미친 사람처럼 속이고, 살인하였으며, 또 붙잡히지 않고 도망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속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나중에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러한 행실들이 최후가 되지 않았고, 시편 119장에 (다윗이 회심한 후) 기록들에서 이러한 언급들이 있다.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또 “내가 이전에는 길을 잃고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킹 제임스, 영문)

지금 누구든지 의혹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만일 그대가 이 기별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나, 그 분을 허락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그대의 생애에서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예약하였으면, 또 그대 생각에서 어떤 성경구절이 그대 마음을 괴롭히면, 질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오.

다음과 같이 내가 생각한 것으로 마친다. 그대가 먼저 태어나야 하고 순서대로 자라나야 한다. 만일 그대가 죄 안에 있고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굴복하지 않은, 결심으로는 자랄 수 없으므로;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죄 안에 있고, 그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대가 지금 그 선택이 필요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새롭게 창조하도록 허락하라. 기다리지 말라. 미루지 말라. 오늘이 구원에 날이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의 약속들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대가 치료될 것이고, 또 그것들에 의하여 오늘 그대가 이곳에서 일어나갈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그대가 알게 될 것이며,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대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며,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내가 초청하는 것은 그분이 그대에게 사 준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간청한다. 그분이 그대를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하여, “내게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하나님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